202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정오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시오.

(2)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의 밑줄 친 ㉠의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한국의 옛이야기를 분류해 보면, 다른 주제에 비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이는 유교와 불교 전통이 중용과 절제, 은근과 끈기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적인 사랑관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I love you."는 영어권에서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일상어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저를 사랑하세요?", "네, 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철의 <속미인곡>에 나오는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실까?"라는 구절처럼,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사랑은 오직 낯빛으로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사랑을 은근한 눈빛이나 흐뭇한 표정으로만 표현할 뿐이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의 사랑관을 더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역설(逆說)을 이해해야 한다.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안맞는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을 담고 있는 수사법을 일컫는다. 독자들은 발화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그 언어가 뜻하는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찌하면 월하노인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내세에는 그대와 나 자리 바꿔 태어날까?
나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산다면
이 마음 이 슬픔 그대가 알 터인데

-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悼亡詩: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

옛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좀체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자식을 잃어도, 아내를 잃어도 그 슬픔을 애써 삭이며 마음속으로만 우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복수를 꿈꿔보는 것이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역설적 표현 방식을 접할 때 독자들은 우선 통념이 전복되면서 나타나는 신선함을 느낀다.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은 직설적이거나 표면으로 드러난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역설적이며, 항아리에서 발효되는 된장이나 김치처럼 곰삭은, 내적 깊이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좀처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제시문 (나)

사랑을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이 질문에 대해 신경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란 감정'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즐거운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을 수는 없다.

사랑이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여느 감정과 구별된다.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그와 함께 그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사진을 찍어 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된다.

제시문 (다)

로미오 (줄리엣 2층 무대의 창문에 등장) 가만! 저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은 무얼까? 저곳이 동쪽이지. 그렇다면 줄리엣은 해님이로구나! 솟아라, 아름다운 해님, 시샘하는 달을 없애라. 달의 시녀인 네가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달은 이미 병들고 슬픔으로 창백하다. 달의 여신은 질투심이 많으니 시녀 노릇은 그만두라. 여신의 시녀 옷은 녹색이라, 광대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입는담, 벗어 버려, 너는 나의 임, 오, 너는 내 사랑! 아,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입을 여네, 아니, 말을 하지 않아, 그대로 상관없다. 저 눈이 말하는 걸, 대답을 해야지. 내가 너무 뻔뻔해,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가장 아리따운 두 별이 나들이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눈동자에게 대신 반짝여 달라고 간청을 한 거야. 그녀의 눈이 하늘에 있고, 별이 얼굴에 있다면? 그녀의 빛나는 뺨이 별들을 무색하게 만들겠지. 대낮의 햇빛을 맞은 등불처럼 말이야. 하늘에 박힌 저 눈동자는 온 누리에 찬란히 빛날 것이며 새들도 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노래하겠지.

*배경: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몬터규 가문과 캐풀렛 가문은 원수지간이다. 몬터규 가문의 로미오와 캐풀렛 가문의 줄리엣은 무도회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무도회가 끝난 후 로미오는 줄리엣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창문에 있는 줄리엣을 바라본다.

제시문 (라)

수(繡)의 비밀
한용운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심의(深衣):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웃옷

[문항 1] 주제(사랑) 통합적 읽기

1. 출제 의도

- 사랑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이해력을 평가한다.
- 사랑에 관한 주제를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h>적용 교육과정</th><th colspan="3">국어과 2015 개정 교육과정</th></tr>
<tr><td rowspan="4">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 colspan="2">과목명: 국어</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td></tr>
<tr><td colspan="2">과목명: 독서</td><td>관련</td></tr>
<tr><td></td><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td></tr>
</table>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류수열 외 7인	금성출판사	2018	123~126	제시문 (가)	X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5인	미래엔	2018	24~25쪽	제시문 (나)	X
고등학교 국어	한철우 외 7인	비상교육	2018	155~156쪽	제시문 (다)	X

교과서 외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EBS	2020		제시문 (라)	X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 주제 통합적 읽기로 사랑에 대한 문화적 관점, 과학적 관점, 문학적(예술적) 관점을 설명하는 논술 문제임.
[문항 1]의 (2)	• 제시문(가)에서 제시된 한국인의 간접적이고 역설적인 사랑관을 바탕으로 제시문(라)의 한용운 시 '수의 비밀'에서 마지막 시행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임.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준거1	**제시문 (가)에서 사랑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기술**
	- 사랑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 한국인은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한국인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마음을 전한다.
준거2	**제시문 (나)에서 사랑에 대한 과학적 관점을 기술**
	- 사랑은 표정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다. - 사랑의 행동은 뚜렷한 목적이 있으므로 욕구와 동기에 가깝다. - 사랑은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욕구와 동기를 주관하는 영역에서 처리된다.
준거3	**제시문 (다)에서 사랑에 대한 문학(예술)적 관점을 기술**
	- 사랑은 감정의 직설적 표현이다. - 줄리엣을 해님에 비유한 것은 상대를 이상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사랑에 대한 자신의 설렘과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항 1]의 (2)	
준거1	**제시문 (라)의 마지막 시행이 간접적 표현임을 기술**
	-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옷을 다 지어 놓았지만, 주머니의 수는 놓지 않음(의도적 지연)(간접적 표현) - 의도적 지연을 통해 상대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과 사랑을 표현
준거2	**제시문 (라)의 마지막 시행이 역설적 표현임을 기술**
	-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가 모순적 표현임(역설) - “짓지 않는 것입니다” 는 사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 - 역설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절실하게 표현함.

5. 대학 제시 답안

(1) 제시문 (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사랑을 바라본다. 서양인들은 사랑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한국인은 사랑을 간접적이거나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유교와 불교의 전통이 한국인의 사랑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사랑을 은근한 눈빛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인은 역설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다. 제시문 (나)는 과학적 관점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욕구나 동기이다.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는 표정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사랑의 행동은 뚜렷한 목적이 있으므로 욕구나 동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학적 관점은 사랑은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욕구와 동기를 주관하는 영역에서 처리됨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문학적(예술적) 관점에서 사랑을 바라본다. 여기서 사랑은 상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이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해님’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상대를 이상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이상화하면서 자신의 설렘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 글자 수: 576자(공백 포함)

(2) 제시문 (가)에 따르면, 한국인은 사랑을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역설적 표현방식을 통해서 전달한다. 한용운의 ‘수의 비밀’은 사랑하는 이가 부재하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간접적이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제시문 (라)의 ㉠에 따르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옷은 다 지어 놓았지만, 작은 주머니에 수는 놓지 않았다. 시적 화자는 주머니에 수를 놓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지 않은 것이다. 시적 화자는 의도적 지연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과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모순적이므로 역설적이다. 여기서 “짓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화자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림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사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글자 수: 538자(공백 포함)

[문항 2]

(1) 제시문 (가)를 국가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국가관에 관한 네 가지 견해를 대립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 차이에 대해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다)의 그림과 표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기술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제시문 (라)에 대해 제시문 (나)의 두 입장에서 타당성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국가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국가에서 태어나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민 등을 통해 국적을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생을 살아간다. 국가는 일상생활의 단순한 필수품을 충족시키려는 데서 출발하여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단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현대 국가는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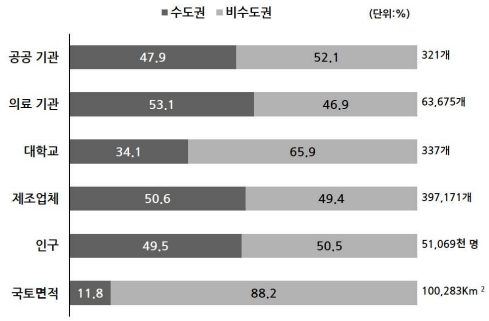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가장 발전한 형태의 공동체로서 다른 공동체보다 우선하며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결사체들은 어떤 가치를 향해 있고 폴리스, 즉 정치적 결사체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포괄적인 가치를 향해 있다. 어떤 폴리스도 가치 있음(goodness)을 장려한다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중략)... 법률은 폴리스의 구성원들을 가치 있고 정의롭게 만들어 줄 생활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를 이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최초로 형성하는 기본 공동체인 가족은 물질적 윤리적 생활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 가족이 결합하여 촌락을 이루고, 다시 여러 촌락들이 결합하여 국가라는 최고의 가장 완전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국가는 단지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결사체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로크'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향과도 같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되며, 또 자기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사이에 혼란을 겪기 쉽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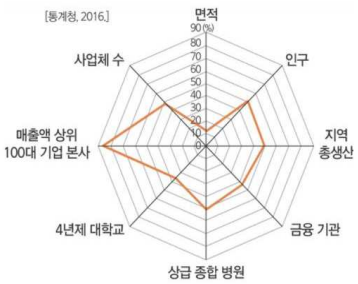
'하이에크'는 자유란 타인의 강제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로, 이를 위해 법을 통한 자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중략)... 개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자유란 그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나 국가가 나서서 특정 재화를 나눠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서양의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가급적 간섭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만약 국가가 개인의 삶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국가의 존립 목적이나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롤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법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욱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평등한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는 국가관이다. 그는 선천적 능력, 가정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우연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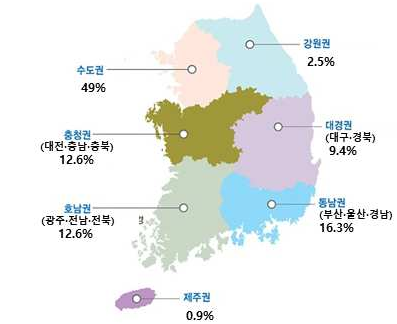
제시문 (다)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통계청/기획재정부, 2016)



[그림 2] 수도권 집중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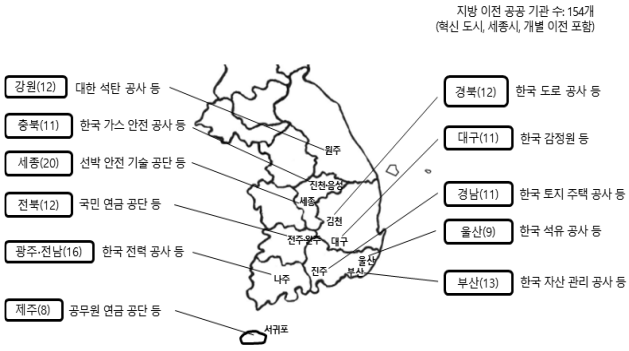
[그림 3] 광역경제권별 총생산 비율 (통계청, 2016)

〈표 1〉 지역별 생활서비스 시설물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구분		경찰서	소방서	병원	쇼핑 시설	문화 시설	시설 평균
승용차 이용	대도시	14.9	15.2	14.1	14.6	13.2	14.8
	중소도시	16.3	15.9	11.5	12.8	14.1	14.2
	농어촌도시	22.7	22.2	13.4	19.1	18.1	19.9
대중교통 이용	대도시	31.3	31.3	29.0	30.6	29.5	31.6
	중소도시	49.6	51.6	33.9	39.2	47.2	44.9
	농어촌도시	87.2	81.5	48.9	64.3	77.0	75.3

(국토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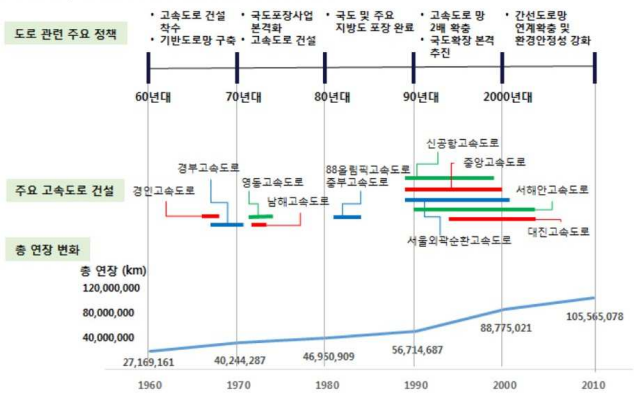
제시문 (라)



[그림 4]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국토교통부, 2016)



[그림 5]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년)에 따른 광역 경제권별 선도 산업 (국토교통부, 2011)



[그림 6] 연도별 주요 도로정책 및 고속도로 확충

[문항 2] : 국가의 역할

1. 출제 의도

- 텍스트를 요약하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 텍스트 이해력과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그림과 표를 읽는 표 문식력과 해결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력과 논리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h>적용 교육과정</th><th>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th></tr>
<tr><td rowspan="2">관련 성취기준</td><td>
1.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6-03] 사회 및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을 탐색한다.</td><td>제시문 (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 · 문화</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td><td>제시문 (라)</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정치와 법</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td><td>제시문(나),</td></tr>
</table>
2.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td></tr>
</table>
</td></tr>
</table>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인	교학사	2020	175쪽, 176쪽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인	교학사	2020	177쪽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5인	씨마스	2020	182쪽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5인	씨마스	2020	177쪽	제시문 (나)	×
정치와 법	이경호 외 5인	미래앤	2019	19쪽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인	교학사	2020	180쪽, 181쪽	제시문 (나)	×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앤	2018	178쪽	[그림1]	×
통합사회	구정화 외 9인	천재교육	2018	194쪽	[그림2]	×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8	191쪽	[그림3]	×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인	비상	2020	188쪽	[그림4]	×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177쪽	[그림5]	×

교과서 외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배윤경 외	국토연구원	2016	56쪽, 57쪽	<표1>	O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육동형 외	국토연구원	2017	17쪽	[그림6]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인	비상	2020	184쪽	공간불평등-지역별 대중공통격차 <표1>, [그림6]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2]의 (1)	· 제시문 (가)를 국가의 필요성 측면에서 요약하고, 제시문 (나)의 네 가지 국가관을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 로크와 하이에크로 분류하고 그 차이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임
[문항 2]의 (2)	· 제시문 (다)에서 공간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를 기술하고, 제시문 (라)의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로크와 하이에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약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 입장에서는 타당함을 논술하는 문제임

4. 채점기준

[문항 2]의 (1)	
준거1	**제시문 (가)를 국가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요약하였는가?**
	· 제시문 (가)에서 국가는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준거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국가관에 관한 네 가지 견해를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였는가?**
	·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하이에크, 롤스의 견해를 분류하면 공동체 정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로크와 하이에크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준거3	**제시문 (나)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의 차이를 논술하였는가?**
	·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는 국가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을 위해 공적인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고, 롤스는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반면 로크는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하이에크는 국가가 개인 삶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문항 2]의 (2)	
	제시문 (다)의 그림과 표를 분석하여 사회 문제로 공간 불평등을 기술
준거1	· [그림 1], [그림 2], [그림 3], <표 1>은 각각 공간 불평등(지역 격차)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제시문 (라)의 해결방안이 로크와 하이에크의 입장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의 입장에서 타당함을 기술
준거2	· 제시문 (라)에서 제시문 (다)의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공기업의 지역 분산, 지역 특성화,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은 그 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개인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로크와 하이에크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정신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 입장에서 타당함

5. 대학 제시 답안

(1)

제시문 (가)에서 국가는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하이에크, 롤스의 견해를 분류하면 공동체 정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로크와 하이에크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는 국가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을 위해 공적인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고, 롤스는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로크는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하이에크는 국가가 개인 삶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답안 글자 수: 471자(공백 포함)

⑵ 제시문 (다)에서 [그림1]은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도권이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에 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그림2]와 [그림3]에서는 수도권에 경제적인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또한, <표1>에서는 대도시가 농어촌도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지역 간의 공간 불평등(지역 격차)이 심하여 사회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불평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제시문 (라)를 보면, 기업의 지역 분산, 지역 특성화,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은 그 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개인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로크와 하이에크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정신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 입장에서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민들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며, 롤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시문 (라)에서처럼 국가 전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롤스의 입장에서 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답안 글자 수: 587자(공백 포함)